

‘버닝’의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



▲ 전종서. 사진=마이컴퍼니

배우 전종서가 미국 UTA(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4일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전종서는 최근 UTA와 계약을 맺었다. UTA는 조니 데프와 해리슨 포드, 샤를리즈 테론, M.나이트 샤말란 감독, 웨스 앤더슨 감독, 코헨 형제 감독 등이 속해 있는 유명 에

이전시다.

전종서는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의 신작 ‘모나리자 앤드 더 블러드문’ (Mona Lisa and the Blood Moon)으로 크랭크인에 들어간다. 이 영화는 미국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비범하면서도 위협할 힘을 지닌 소녀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종서는 ‘버닝’을 통해 그를 눈여겨본 애나 릴리 아미푸르 감독 측의 러브콜을 받고 오디션을 거쳐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전종서 외에 케이트 허드슨, 크레이그 로빈슨, 에드 스크레인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다.

전종서는 2018년 제 71회 칸영화제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의 여주인공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넷플릭스 영화 ‘쿨’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스페인 원작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의 한국판 주인공으로 합류했다.

엔하이픈, 빌보드 4개 차트 진입



▲ 엔하이픈. 사진=빌리프랩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미국 빌보드차트에 진입했다.

빌보드가 3일 발표한 최신 차트(5월8일 자)에 따르면, 엔하이픈은 빌보드 내 총 4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신곡 ‘드링크-데이즈드(Drunk-Dazed)’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3위에, ‘피버(FEVER)’, ‘낫 포 세일(Not For Sale)’은 각각 18위, 21위에 올랐다.

또 세계 200개 이상 국가/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66위를 차지하며 데뷔 후 처음으로 이 차트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엔하이픈은 지난해 발매한 데뷔 앨범 ‘보더: 데이 원(BORDER: DAY ONE)’에 이어 이번 앨범 ‘보더: 카니발’로 또 한번 ‘월드 앨범’, ‘히트시커스 앨범’ 차트에 입성했다. 이번 음반은 ‘월드 앨범’ 9위, ‘히트시커스 앨범’ 15위를 기록했다.

BTS 신곡 ‘버터’, 몽환적 예고 영상 공개



▲ 방탄소년단(BTS) ‘버터’ 콘셉트 클립. 사진=빅히트뮤직

신곡 ‘버터’(Butter)를 발매하는 방탄소년단(BTS)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조한 멤버들의 ‘콘셉트 클립’ 영상을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4일 공식 SNS에 멤버 정국과

RM의 ‘버터’ 콘셉트 클립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다채로운 색채감에 여러 개의 상이 겹쳐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살렸다.

앞서 지난 2일 공개된 ‘콘셉트 클립 티저 포스터’에 등장했던 버터와 폭죽이 영상에도 나와 팬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 포스터에는 이외에도 풍선, 카메라, 사탕 등 다양한 오브제가 등장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영어로 부른 새 디지털 싱글 ‘버터’를 전 세계 동시 발매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버터’가 ‘신나는 서머송’이라며 ‘댄스 팝 기반의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에 방탄소년단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팬들의 기대감도 높다.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공개된 ‘버터’ 로고 트레일러 영상은 1시간 동안 버터가 하트 모양으로 녹는 모습만 천천히 보여주는데도 1천498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